



한국영화 전문가 100명 가운데 상당수가 '최고의 감독'으로 임권택을 꼽았다. 1962년 장편 데뷔작을 내놓은 그는 지금까지 102편을 연출했다. "긴 시간 한국 웰메이드 영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사진은 2015년 개봉한 영화 '화장' 촬영 현장에서의 임권택 감독. 사진제공 | 명필름

## “102편 쏟아낸 거장... 그는 늘 새로웠다”

전문가 100명 중 26명 최고로 꼽아  
서편제 취화선 등 무려 102편 연출  
한국감독 최초로 칸 감독상 받기도  
“한국영화의 기초와 바닥 다진 감독”

“임권택 이상, 한국영화를 대표할 인물은 없다.”

한국영화의 질적, 양적 성장을 상징하는 단 한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임권택 감독(83)이다. 1962년 데뷔작 '두만강은 흐른다'부터 2015년 '화장'까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은 무려 102편. '아제 아제 바라아제' '취화선'을 통해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린 아티스트로도 인정받는 그는 1919년 '의리적 구토'로 출발해 100년을 맞은 한국영화 역사를 구축한 결정적 인물이다. 왕성하면서도 도전적인 영화 연출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40년간 꾸준히 '감독상'을 수상한 유일무이한 연출자이기도 하다.

스포츠통아 창간 11주년 및 2019년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100명의 영화 전문가와 함께 꼽은 '최고의 감독'은 역시 임권택이다. 감독과 프로듀서를 포함한 제작자,

홍보마케터와 평론가 등 100명의 전문가 가운데 26명이 임권택의 이름을 꺼냈다. “오랜 시간 시대를 관통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평가받은 세계적 가치” “지금의 한국영화 기초와 바닥을 다진 감독”이란 평이 따랐다.

설문에 응한 한 영화감독은 “1980년대 이후 긴 시간 한국 웰메이드 영화를 주도했다”며 “한국영화의 질적인 수준을 일정하게 이끌어내면서 국제적인 인정과 동시에 후배들에게도 웰메이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영화감독은 “실망 시킨 적 없는, 항상 '대가'의 느낌”이라고 했다.

임권택은 현존 한국영화 감독 가운데 '거장'이란 평가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다. 102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만이 아니다.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1960~1970년대를 거친 그는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작품의 세계를 단단히 구축했다. 세계에 한국영화의 가치를 비로소 알린 것도 그의 몫이다.

1986년 연출한 '씨받이'의 주인공 강수연은 한국 배우로 처음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2002년 내놓은 '취

화선'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감독으로는 처음 감독상을 수상했다. 2005년 아시아 감독 최초 베를린 국제영화제 명예 황금곰상의 주인공도 됐다.

임권택 감독은 1990년대 들어 시대와 인물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도 장르의 변주 역시 멈추지 않았다. 1990년대 시작한 '장군의 아들' 시리즈, 서울관객 첫 100만 돌파작인 '서편제'가 대표적이다. 소설 '태백산맥' 등 영화화를 통해 우리가 지나온 시대 정신과 이데올로기를 스크린에 꾸준히 담아왔다. 그의 작품들은 한국영화에 건강한 다양성이 됐다. “그 많은 영화에서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훌륭한 예술가” “한국의 전통과 역사 뿐 아니라 시대성까지도 예민하게 포착해온 필모그래피의 다양성은 가히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따른 이유다.

### ● '모더니즘' 김기영, '리얼리즘' 유현목

설문에 응한 영화 전문가들은 '최고의 감독'을 묻는 질문에 김기영, 유현목, 신상옥, 이만희 등 한국영화의 한 시대를 일군 거목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꺼냈다. 특히 김기영, 유현목 감독에는 구체적인 선택 이유가 따랐다.

“많은 한국영화 감독들이 오마주를 바

치고 싶어 하는 연출자”라는 이유로 '하녀'의 김기영 감독을 꼽은 이들도 여럿. '오발탄' '인여인간'의 유현목 감독에는 “1950~1960년대 한국영화가 전근대성을 극복하고 영화 언어에 대한 자각을 이루는 데 기여한 작가주의 연출자”라는 설명이 붙었다.

그 존재 가치와 의미를 일일이 되뇌어야 하는 영화감독들의 이름이 다수 나왔지만 임권택 감독에 이어 '최고의 감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는 봉준호 감독이다. 장르영화에 시대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살인의 추억'을 대표작으로, 1300만 관객(배급사 집계)을 동원한 '괴물'로 흥행 파워까지 증명하는 그는 평단은 물론 관객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한국영화 대표 감독으로 통한다. 특히 '살인의 추억'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0인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한국영화 100년을 상징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꼽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적이면서도 개성적인 특징을 모두 갖춘 연출자” “앞으로의 작품들이 가장 기대되는 한국영화 감독”이라는 이유를 봉준호 감독 이름에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 ▶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들



### 연예뉴스 HOT 5

강다니엘, LM엔터 상대 가처분 신청 '금품 전달 시도' 최중훈, 경찰 입건



강다니엘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그의 사전 동의 없이 그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등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1~2개월 안에 결정이 날 예정이다. 강다니엘은 3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며 소속사와 분쟁 중임을 전한 바 있다.



최중훈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와 경찰 유착 의혹을 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중훈(29)이 과거 음주단속 현장 경찰관에 금품을 건네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1일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중훈이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 음주단속 현장에서 2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은 없으나, 경찰에 금품 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신뢰 회복이 불가하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민호

그들 사이니의 멤버 민호가 4월15일 해병대에 입대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민호가 지난 1월 말 해병대에 지원했으며, 이날 오전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내달 15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입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민호가 입대 전까지 솔로곡 '아이 홈' 발표, 팬미팅 개최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민호는 2008년 사이니로 데뷔한 후 드라마 '화랑', 영화 '인랑'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약했다.



안재욱

최근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연기자 안재욱(48)이 일본 팬미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소속사 측은 최근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4월7일 오사카 마츠시타IMP홀에서 열리는 팬미팅 관련 공지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활동 재개 시점이 이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재욱은 2월10일 지방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그는 “참회와 자숙”을 하겠다고 뮤지컬 '광화문연가' 등 국내 활동을 모두 중단했다.

정우, 영화 '뜨거운 피' 주연 캐스팅



정우

연기자 정우가 영화 '뜨거운 피'의 주연으로 확정됐다. 21일 배급사 씨네21(썬다리아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영화는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 '고래'로 등단한 작가 천명관의 감독 데뷔작이고 제22회 한무속문학상 수상작인 김연수 작가의 동명 소설을 모티프했다. 정우는 극중 부산 번두리 구암을 장악한 조직의 중간 간부 회수 역으로 출연한다. 사랑하는 여인과 단출한 삶을 꿈꾸지만, 조직간 팽팽한 긴장 속에 흔들리는 인물이다. '뜨거운 피'는 이달 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